

# 일자리 · 골목상권 · 도시가스 공급... 서민생활 안정 '총력'

정읍시는 지난해 무엇보다 '더불어 잘 사는 지역경제'의 탄탄한 기반 굳히기에 주력했다. '더불어 잘 사는 선순환 경제구조 복원'을 전략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가스 공급과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해 삶의 질을 높이고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집중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정읍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정읍시 GRAND 취업 박람회

70개분야 6600여개 일자리 창출  
고용복지+센터, 구직·구인 연결  
핵심거점으로서 역할 총실

나들가게 육성사업으로  
골목상권 살리기에 집중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심혈

친환경 청정연료 도시가스  
1767가구에 대한 공급 마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거점 부상

###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꾀하다

지난해 70개 분야에서 약 6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청·장년층(51명)과 취약계층(35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그랜드취업박람회를 개최(10월)해 65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자활근로사업(381명)과 노인돌봄서비스(539명), 노인일자리(2621명), 장애인복지일자리(156명), 산발 감시원(111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722명)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정읍고용복지+센터는 구직과 구인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지난해 11월 현재까지 구인·구직상담 7496건, 취업 1651건의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도 실업 급여 지급과 산전·후 휴가 급여와 모성보호사업,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꾀했다.

시는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 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운영,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나들가게 차별화 공동구매 전략 일본 벤치마킹



도시가스 공급

### ▲탄탄한 골목경제가 정읍경제를 살린다

대기업 편익점 개설 증가 등 유통 환경 다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살리기 에 집중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 추진하고 있는 나들가게 육성사업이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시설 현대화와 경영개선, 점주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인 올해 23개소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또 시내버스와 언론매체를 활용해 '나들가게 공동 세일전'과 특화사업 등의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펼쳤다.

시는 2차년도인 올해에도 나들가게 점주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함으로써 정읍의 골목상권이 활성화 되고 동네 슈퍼가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는 전통상업 점포 살리기를 통해 전통사업 보존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꾀했다. 대장간과 솥물집, 국약기 제조 등의 전통상업 점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설 개보수와 자재 구입 등을 지원했다.

###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의 뿌리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정읍 대표 전통시장인 샘고을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과 함께 서비스 개선을 꾀했다. 이의 일환으로 대형 주차장 조성, 공동 쿠폰제와 택배 서비스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샘고을시장은 지역특화형 전통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고객과 상인의 상생 일환으로 마련한 주말 야시장 운영을 비롯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이벤트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시는 올해에도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은누리상품권 구매 확대 홍보와 더불어 3개 전통시장에서 각종 다양한 문화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안전 관리에도 힘을 쏟았다. 비가림 시설과 편의 시설 보수 등 시설물 유지 보수와 함께 국비를 확보해 화재 속 보설비를 설치했다. 시는 전통시장 내 노후소방시설 교체사업이 공모에 선정돼 3억5000만원(국비)로 확보한 만큼 올해에는 노후 소방시설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청정 연료인 도시 가스 공급 확대도 경제성과 안정성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해 1767세대에 대한 공급을 마쳤다. 이로써 12월 현재 도심권 3만426세대의 68.9%인 2만856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다. 시는 또 도시가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체 재원으로 매년 3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기도 한데, 지난해 3억7500만원으로 여러 가지 주민 경감 시책을 추진했다.

특히, 신정동 3대 국책연구소와 첨단과학산업단지 일대 도시 가스 공급 기반도 구축중이다. 45억을 들여 시기주공 아파트 앞 ~ 첨단과학산업단지까지 총 연장 11.3km의 공급망을 확충하여 지난해 7월 완료했다. 올해에는 13억원을 들여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 내장산리 조트까지 총 연장 2.4km 구간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정읍, 신재생 에너지의 거점이 되다

정읍시 태양광과 태양열, 지역 등 신재생 에너지의 거점으로 부상했다. 시는 2012년부터 ~ 2016년까지 시정 제2관 옥상을 비롯 지역내 공공서 7개소에 태양광등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연간 1억5000만원을 절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황토현수원원에 33KW의 태양광을 설치했다. 올해에는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교통회관에 25KW, 신대인 공공 하수시설에 60KW의 태양광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태양광과 지열 등을 결합한 융, 복합 지원사업 공모 등을 통한 국비 확보에도 주력해서 사업소와 읍면동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에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그린홈 100만호 태양광(열) 보급에 맞춘 사업도 추진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으로 태양광 설비(3KW)를 28세대에, 지열설비(17.5KW)를 7세대를 지원했다. 시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공급 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Happy Citizen, Proud Jeongeup!

## 제124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

대회일자 : 2018년 2월 25일(일)  
장 소 : 정읍종합경기장

- 접수기간 : 2017년 11월 1일 ~ 2018년 1월 24일
- 주최/주관 : 정읍시체육회 / 정읍시육상연맹
- 참가접수 : 정읍동학마라톤 홈페이지 신청
- 종 목 : 풀, 하프, 10km, 5km, 단체전
- 홈페이지 : www.jdmarathon.kr
- 연락처 : ☎063.537-4219 fax ☎063.537-4218

정읍시체육회 · 정읍시육상연맹